근본주의 성도들이 반지성주의자들 이라구요?-9(뉴에이지 운동)

-하나님에 대한 오랜 반역-

안녕하세요?우리 주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한 명절 연휴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천한 소양과 서툰 작문 실력으로 인해 다른 성도분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게 아닌가 하고 늘 걱정이 앞서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한 악하고,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으로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문의 편의와 가독성을 위해 앞으로는 평어체를 쓰겠습니다.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에 대해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실존주의와 더불어 뉴에이지 사상은 이제 우리 삶과 대중문화에 너무 만연해서 별다른 이질감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1.뉴에이지 운동의 본질

이 뉴에이지 운동은 18·19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의 영지주의적 또는 형이상학적 전통 위에 1960년대에 일어났던 반문화운동의 영향으로 활발히 수용된 동양사상을 받아들여 대체종교운동의 하나로 출발했다.
이 운동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이 신성한 힘을 공유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 위에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일원론,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 신과의 일체감을 주장하는 신비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뉴에이저들은 뉴에이지 운동의 출현 배경을 점성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너무 조악(성경을 곡해해서 점성술과 혼합시킴)해서 일일이 다 적는것은 시간과 지면의 낭비이므로 요약하자면 현재는

물병자리 시대이고 이 시대는 전 인류를 위하여 이상적인 관념들이 희생될 협력의 시대로 여겨진다.

뉴에이지 사상은 여러 가면들을 쓰고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들은
고대 이교들에게서 파생된 것이다.
힌두교,요가,불교,신지학,도교 등이 그것들이다.
주요 교리는 범신론을 비롯 윤회,환생 또 선행,수행과 명상 따위 등으로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
뉴에이지 연구가 중 하나인 더글러스 그루두이스는 뉴에이지 사상의 특징을 여섯가지로 분류한다.
· 만물은 하나이다 - 일원론
· 만물은 신이다 - 범신론
· 인간은 신이다 - 선불교
· 의식은 변화한다 - 포스트 모더니즘
· 모든 종교들은 하나이다 - 종교통합
· 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 - 신세계 질서

댈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및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노만 가이슬러는 뉴에이지 사상에 나타나는 다음 14가지 교리를 나열하며 뉴에이지 운동이 인본주의적 휴머니즘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며 대중문화,과학,의학,심리학,정치학 등을 포함해 교묘하게 연합된 운동이며,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하게 잠식시키려는 반역적인 범세계적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 비 인격적인 신(force)
· 영원한 우주
· 사물의 환상적인 성격
· 생의 윤회적 성격
· 환생의 필연성
· 신으로의 진화

· 외계인들로부터 오는 지속적 계시들
· 인간과 신의 합일성
· 명상의 필요성
· 신비적인 술법(점성술,강신술)
· 채식주의와 전인적 건강
· 평화운동(반전운동)
· 단일 세계 정부
· 종교 혼합주의

뉴에이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와 영성의 관점에서 고찰한 대표적 학자 하네그라프(Wouter J. Hanegraaff)는 「뉴에이지 종교와 서구문화」(1996)에서 그 속성을 세속적인 것, 전인론, 진화론, 종교의 심리화와 심리의 세속화, 앞으로 다가올 새시대의 기대로 보았다.
그 후에 추가적인 고찰을 통해 그는 뉴에이지 종교가 세속화된 밀교로 정의될 수 있으며, 19세기 동안 철저한 세속화의 과정을 겪은 서구 비의(秘儀) 전통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세속화된 비의의 새로운 현상은 오컬티즘(occultism)으로 불리는것이 가장 적합하며, 그것은 20세기 초까지 완전히 발전했고 사실상 1970년대 뉴에이지 '운동' 이 일어날 때 이 운동에 의해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2. 뉴에이지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

「물병자리 시대의 비전」을 저술한 조지 트레벨란(G.Trevelyan)이 뉴에이지 운동의 창시자로 평가받으며,
또 그것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이론화에 가장 기여한 사람은 데이빗 스팽글러(David Spangler)와 매를린 퍼거슨(Marilyn Ferguson)이다.
스팽글러는 1973년까지 파인드혼 재단의 공동 의장이었고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작가와 연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미래학 강사로 지냈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비전에 따른 저작물들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출판, 교육회사의 대표이다.
1976년 「계시:뉴에이지의 탄생」
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뉴에이지'의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한 이 운동의 대변자이다.그 이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눈문과 저서와 공동체 운동을 통해 뉴에이지의 핵심사상을 개별 영성 운동에서 '변형'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이끌어갔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 영성개발, 신비체험, 전인적인 치유 등의 뉴에이지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스팽글러는 비의(Occult), 신비주의 영성, 동양 종교, 영적인 치유,영매,채널링,강신술,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범세계적인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

매를린 퍼거슨은 그의 대표작 「물병자리의 공모 : 1980년대의 개인과 사회의 변형(한국에선 의식혁명이란 책으로 번역 출간됨)을 저술 및 출간했다. 이 책은 뉴에이지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여 이 운동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두뇌"라는 잡지를 출판하여 건강,정신의학,의식 상태, 꿈, 명상 그리고 관련된 주제들의 문제들을 탐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범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질서가 수용되길 설득한다.

또 예수회 사제이자 유명한 고생물학자였던 피에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을 빼놓을 수 없다.뉴에이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뉴에이지 사상의 대부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카톨릭과 진화론의 과학적 체계를 혼합시키려고 시도 했으나 실패에 그쳤고 결국 신비주의자가 되었다.

테야르 드 샤르댕은 진화철학자,지질학자,예수회 사제로 1881년 프랑스 오베르뉴에서
태어났으며 18세에 예수회 수련소에 입소해 멘토인 폴 트로사르의 권고로 과학을 전공하게 되며
30세에 사제 서품을 받는다.
38세에 파리카톨릭대학의 지질학과 교수로 임용,
41세에 소르본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학위 취득.
59세에 대표작인 [인간현상]을 완성하며
74세에 뉴욕에서 사망했다.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거부하고 우주는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전 빅뱅의 순간에 만들어졌으며 계속하여 오메가 포인트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주 진화론을 주장했다.

샤르댕은 창세기의 창조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며 비 과학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신학도 현대의 추세에 맞게 진화론과 조화를 이루는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살펴볼수록 현대 과학의 모든 발견은 창조를 견고하게 지지하는걸 알게 되는데 샤르댕은 진화를 확고히 믿고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는 궤변론자요 신비주의자로서 패착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계에서도 수용불가능한 개별적 주장이고, 또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결코 수용할수 없는 목적론적인 형이상학적 주장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가 죽은 후 카톨릭과 성공회 소속 진화론자

들, 유신진화론자들에게 추종의 대상이 되었다.

샤르댕은 필트다운인 사기 사건(Piltdown hoax:대영박물관 직원에 의해 사람의 두개골에 오랑우탄의 턱뼈를 붙이고, 화학처리를 통해 오래된 것 처럼 보이게 하고, 인간의 이빨과 비슷한 것으로 채워넣었던 위조 사건)
에도 깊이 연루 되어있었다.

이 사기 사건은 저명한 진화론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의 한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르면 샤르댕도 분명히 사기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뉴욕에서 죽기 몇년 전 1953년에 이 사기가 폭로되자 굉장히 당혹해 했다고 한다.

샤르댕은 또한 세계정부주의자 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가 '신'과 하나가 되어 결국에는 각 사람이 자신의 신성을 깨닫게 되길 꿈꿨다.
인류가 최종적인 진화를 위해 오메가 포인트(초인격)에 도달하기 위해선 국가,민족,인종,문화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모든 것들에 전생이 있다는 점은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형태에는 전형이 있는데, 조금 덜 진화된 형태이다. 우리 각자는 모두 신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범신론과 기독교 사이의 거리를 좁히자는 것이다.어떤 사람은 기독교 범신론의 정신 또는 기독교의 범신론적인 측면이라 부를수 있는 점들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서 말이다."

"...내가 구원받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의심

없이 기다리는 그는 보편적 그리스도라 믿는다. 즉 진화론의 그리스도 말이다."

"...모두를 만족시켜줄수 있는 보편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종교들이 모이게 될것이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유일하게 전환할 방도이며 미래의 종교가 탄생할수 있는 형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있는 국제기관인 UN도 테야르 드 샤르댕의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UN의 부 사무총장이었던 로버트 뮐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최대한 신속히 세계 단일정부와 세계 단일종교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테야르 드 샤르댕은 항상 UN을 그의 철학의 진보적인 기관의 전형으로서 보았다.샤르댕은 UN의 동료들에게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상에 풍부한 영감을 준 그의 절친 드 브루베리 신부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나 자신또한 샤르댕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뉴에이지 운동은 신지학(theosophy)의 유산을 많은 부분 계승했는데 이 신지학은 헬레나 블라바츠키(Helena Blavatsky)에 의해 집성되었다.그녀는 이민온 러시아인으로서 1875년에 신지학협회를 창설한다.
신지학적인 기본 명제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종교는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뉴에이지의 세계 통합이라는 전략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은 블라바츠키의 제자이자 신지학협회 3대 회장인 엘리스 베일리 였다.
그녀의 저작들은 루시퍼 출판사(Lucifer Publishing Company)에 의해 출판 되었다.
그러나 그 노골적인 사탄숭배적인 명칭으로 인해 비난이 일게되자 1922년 루시스 협회(Lucis Trust)로 개명 출범하여 오늘날에는 뉴에이지 이념을 보급시키는 주요한 단체가 되어 있다.
그 밖에 셜리 맥클레인(Shirley Maclaine), 존 네이스빗(John

Naisbitt), 매튜 폭스(Matthew Fox),도널드 리브즈(Donald Reeves),피터&에이린 캐디(Peter & Eileen Caddy),칼 융(Carl Jung) 등이 있다. 분량이 길어지는 관계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독특하게도 이를 운영하는 중심적인 지도 기관은 없다.그러나 '뉴에이지 사고'를 세계적인 주요 기관들과 공유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예로 UN,UNESCO,WCC,로마클럽,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등이 있다.

3.대중문화에 침투한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 실태

<앤드류 그릴리 보고서에 기록된 1970년대 상황>
사회학자이며 목사인 앤드류 그릴리는 모든 미국 성인의 67% 또는 약 7000만명이 영매 경험을 했으며 약 3000만 미국인들이 환생을 믿고 14%는 영매, 채널링을 시인했다.
이성을 중시하는 엘리트 과학자와 내과의사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1980년대 전반 상황>
그릴리의 보고서 이후 수행된 갤럽에 의한 전국적 조사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것을 확증했으며 1978년 갤럽 투표결과에 따르면 1,000만 미국인들의 동양 신비주의의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9백만 명이 영적 치유를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 1978-1984년 사이에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점성술에 대한 믿음이 40%에서 59%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상황>
LA타임지는 여론 연구조직인 SRI에 의하면 3400만 미국인들이 신비주의를 포함해 영적인 성장(inner growth)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

도했고, 거의 미국 성인의 반에 가까운 42%가 그들이 죽은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북 일로노이 대학에 의해 수행된 198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성인의 67%가 점성술 리포트를 읽었고 36%가 그 리포트가 과학적이라고 믿었다.
1988년 미국의 미디어는 레이건 대통령 내외가 자주 점성술 예보를 읽고, 영부인은 남편의 활동과 여행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점성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로 떠들썩했다.

<1990년 이후>
뉴에이지 영성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계에서는 네 명중 한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비(非)성경적인 개념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11%가 하나님은 "사람이 도달할 수도 있는 좀 더 고도의 의식 상태"라고 믿고 있고, 8%는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잠재능력의 총체적 실현"으로 정의하며, 3%는 개개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1991-1995년 까지의 장기적인 연구에서 뉴에이저들은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일관되게 제3의 가장 거대한 종교집단"이 되고 있다.

...뉴에이지 운동이 종교계와 대중문화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그 세를 신속히 확장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뉴에이지 운동의 실체와 그 위험성에 관해 경고하는 시리즈 물이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기독교 문서 선교회(CLC)의 대표인 박영호 목사가 선제적인 사역을 했다. 이 글을 쓰면서 많은 부분 박영호 목사의 글을 참조 및 인용,발췌 하였다.
한국의 뉴에이지 연구 서적으로서는 필독서 라고 할 수 있는 종교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한 전명수 박사의 「뉴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2009.집문당)또한 많은 부분에서 인용 및 발췌하였다. 이런 좋은 탐구물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뉴에이지와 성경과 교리를 비교 나열해보면서 서서히 글을 맺을까 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뉴에이지는 예수님을 그저 마스터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만
뉴에이지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인간의 행위와 노력 명상 따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진리요,생명이라 말씀하시나 뉴에이지는 우리안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의식을 깨워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루시퍼는 마귀라고 이르시나
뉴에이지는 루시퍼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이르시나 뉴에이지는 인간은 진화의 결과물이며 영적인 인간은 불멸하며 늘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 성경은 부활(resurrection)을 가르치나
뉴에이지는 환생(reincarnation)을 가르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이르시나
뉴에이지는 진리가 우리안에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이르시나
뉴에이지는 maitreya(미륵)을 기다리라고 한다.

-성경은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나
뉴에이지는 죄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권면하나 뉴에이지는 우리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우라고 한다.

인간의 의식구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희미하게 만든 결과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다.
우주의 부조리감,만연한 폭력,애정의 결핍,끝없는 사회적 긴장들과 문화적 긴장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이것들을 극복해야할 본질적인 이유를 가질수 없게 된 결과 이러한 실존적 불안속에서 인류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뉴에이지의 본질과 그 종말을 기록해 두셨다.
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4절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마귀의 거짓말
5절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마귀의 거짓말
6절 선악과를 먹었을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먹기에 좋고(육신의 정욕),
보기에 아름다우며(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운(인생의 자랑)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끊임없이 유전되는 죄성과 하나님의 저주 즉 사망과 고통과 수고뿐임을 우리는 너무 잘알지 않는가.

렘 2:11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2:12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무서워하며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하게 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게 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명절 되시기 기원합니다.

※ 이 글을 작성하며 「 뉴에이지 운동과 한국의 대중문화 」(전명수 저. 2009) , 「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1992) , 「 뉴에이지 운동」(김호 저. 1995) 를 참조 및 인용 · 발췌 하였습니다.